

연중 제31주일

제1독서 : 욕기 19, 1. 23-27

제2독서 : 로마 5, 5-11

복 음 : 요한 11, 17-27

# 숲 정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요한 11, 25)

## 강론

###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김훈 신부/중앙성당 보좌

하느님과 인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되는 오늘 우리는 죽은 나자로와 그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요한 11, 3-5)를 읽게된다.

눈물은 흔히 '피와 땀'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인다. 피는 희생을, 땀은 부단한 노력을, 눈물은 가이없는 사랑과 자비를 상징한다고 할 때, 십자가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마르 14, 32-42. 15, 21-47)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시어 이고을 저고을 찾아 다니며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마르 1, 37-38),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한도 많고 슬픔도 많은 우리네 인간사를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셨던(마르 7, 24-30. 루가 7, 11-17) 예수의 일생은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삶이었다고 할 것이다. 누군가 예수를 믿고 따라 살겠다고 그는 이 세상과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요한 10, 10) 예수처럼 하느님의 고귀한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장애들을 걷어내고 치위 가는 삶,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투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위령성월과 위령의 날을 단순히 구천을 떠도는 귀신 '좋은데'가게 해주는 날이라든지,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인생무상을 느끼고 죽은 이들을 잠깐 기억하면서 나 잘 죽어 천당갈 준비하는 시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위령성월과 위령의 날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을 믿고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하느님께 '되돌아 간' 분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 드리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삶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그분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날 이어야 한다.

## 소리

### '리더쉽'과 '헤드쉽'

17세기의 일이다. 영국의 '리처드 킹스턴'경이 어느 날 '풋볼'경기를 관전하고 있을 때 사소한 일로 '스코틀랜드'팀과 '잉글랜드'팀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관중들까지 흥분하여 운동장에 난입,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킹스턴'경이 수습에 나섰다.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승무원들이다. 이렇게 싸우게 되면 '배'와 함께 우리도 침몰하게 될 것이다."

'스포츠맨 쉽(배)'이라는 말마디는 이렇게 생겨났고 '리더쉽'이니 '헤드쉽'이라는 말마디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말꼬리에 '쉽'을 달고 있다고 하여 모두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같은 뜻의 말마디로 혼용하고 있는 '리더쉽'과 '헤드쉽'만 해도 그렇다. '리더쉽'은 지도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 한 집단과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고 '헤드쉽'은 머리와 명령만으로 사람들을 다뤄 배 밖에서 배에 탄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리더쉽'이 있으면 나라가 잘 될 것이고 '헤드쉽'만 있다면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

요즘 대선출마자들 모두가 저마다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리더쉽'보다는 '헤드쉽'만 가진 것 같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라가 어지럽지 않을까 걱정된다. (모)

### 숲정이 산책



성서의 오솔길

기쁨의 샘

욥기(記)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욥기는 대략 기원전 5세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무죄한 이가 겪는 슬픔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나서는 내용이다.

현세의 복락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지혜로운 행실 곧 '경건하고 성실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잠언의 신념이 욥기에서는 도전을 받는다.

처음 두 장은 부유하고 행복하던 한 인물이 돌연한 재앙으로 자녀와 재산, 건강과 명성을 하루 아침에 몽땅 빼앗기는 이야기를 실고 있다. 욥은 불평하지 않고 인내를 다하여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욥기의 저자가 관심을 두는 문제는 욥의 인내가 아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자는 선인이 당하는 고통과 비극적 운명을 사색하고 있다.

욥기의 저자는 욥과 친구 엘리바스와 발닷과 소바르 사이에 길다란 대화를 소개한다. 친구들은 욥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 토론한다. 친구들의 연설이 끝날 때마다 욥은 그들의 이론을 수긍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32장에는 엘리후라는 새 인물이 등장하는데, 엘리후는 장문의 연설(32-37장)로 하나님이 욥을 벌하지 않으실 수 없으리라는 명분을 찾으려고 한다.

끝내 하나님이 토론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우주와 그 속의 온갖 조물을 창조하시고 안배하시는 무한한 지혜를 욥에게 일깨우신다. 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거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가 한 말을 모두 취소한다.

하나님은 욥의 신뢰를 가상히 여기시고 시험을 당하기 전에 소유했던 복을 곱으로 갚아주신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욥의 무죄함을 공공현히 밝히셨다. 그렇지만 무죄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근본문제는 여기서 확연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만사를 인간의 선익을 위해 안배하시기 때문이다.

보시니 참 좋았다.

윤영미(세실리아)/시기동 성당

97년을 시작하면서 일상의 어려운 일들은 나의 영혼을 조금씩 건조하게 만들고 있었다(지옥은 세상안에 있으며 자기폐쇄,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면 그안에 내가 갇혀 있었다). 인간의 힘에 한계를 느낀 나는 작심하고 매일미사를 시작하였고 내안의 나와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미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면서도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고, 개신교에선 갖은 성경공부가 성당은 왜 뜰할까하고 생각하던 차에 출애굽 성서공부가 분당에서 시작되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 내안의 갈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맛본 생존의 위협인 목마름의 위기같았고 죽음의 물인 마라의 쓴물을 생명의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잘것 없는 나무 한그루조차 귀히 쓰시는 하나님은 하물며 사람인 나를 귀히 쓰시지 않을까하는 기대감과 신뢰를 주었다.

말씀을 그리워하며 창세기 공부를 계속하면서, 굳은 믿음과 지혜의 간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되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내 안에서 참회의 마음이 일게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하신 자비 덕분이었다. 이젠, 누군가가 나에게 일상생활에서 너는 누구의 숨결을 받아 살아가느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입김이며 오직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셨으니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보이는 '나'가 되고 싶다.

선선한 가을의 낭만, 갈대들의 흔들림. 계절마다 각기 다른 옷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이 가을엔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속에서 만나면 웬지 기본이 좋은 사람,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고프다.

고려보석

금·은·시계  
결혼 예물 전문  
(목주반지 제작전문)  
김형태(울리아노)  
박태연(마르타)  
전동성당 사거리 전복은행 앞  
☎ 82-9005

전동성당 지정 사진관

유일 사진관

백일, 돛, 웨딩앨범촬영  
회갑·칠순 비디오 촬영  
류영문(가에파노)  
류윤식(가밀로)  
☎ (0652) 83-1949, 84-9740

연지곤지 웨딩이벤트

드레스 40만원  
(턱시도·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웨딩포토·비디오 촬영 원판  
유순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 82-2347 (야) 225-5755

숲정이 익스프레스  
이시점

사다리차·인부대기·포장이사  
251-2024  
☎ (0652) 246-2024  
223-2024  
이한주(토마)